

202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협약서

1 임금

1. 임금인상

① 2023년 임금인상은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에서 정한다.

2. 최저임금

① 2023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특성교섭 및 현장교섭에서 정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운영개선

- ① 사용자는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전면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사용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과 관련한 정부 기준과 방침,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면 노사 공동 논의기구를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인력은 휴직대체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정규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3 인력 확충

1. 직종별 적정인력 확충

- ① 사용자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과 방침,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면 노사 공동 논의기구를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 ② 사용자는 휴가 및 휴직을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여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2. 환자 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ratios) 시행

- ① 사용자는 간호등급제 개편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방안을 노사 합의로 마련하여 시행한다.

3. 업무분장 명확화 및 불법의료 근절

- ① 사용자는 의사 업무는 의사가, 약사 업무는 약사가, 간호사 업무는 간호사가, 의료기사 업무는 의료기사가 하도록 직종 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 ② 사용자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한다.
- ③ 사용자는 의사 외의 직종에 의한 대리 수술과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대리 처방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4. 비정규직 문제 해결

- ① 사용자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 호봉, 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차별을 금지한다.
- ② 사용자는 비정규직 현황 자료를 조함에 제공한다. 비정규직 현황 내용은 노사 합의로 마련한다.

4 의료민영화·영리화 전면 중단

- 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 사용자는 위탁운영을 용인하지 않으며, 위탁운영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 활동한다.

5 노동조건 개선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 주 40시간과 시간외근무 12시간을 포함 최대 52시간 상한제를 준수한다.
- ② 사용자는 임금에 관한 사항, 노동시간에 관한 사항, 연장근무에 관한 사항,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 등 노동조건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기존의 단체협약을 존중하

며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 ③ (공공병원) : 노사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 인건비(야간간호료, 감염 관리수당 등)를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추가 인력을 총정원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2023년 9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 사용자 교섭대표

위원장 나순자 ()

(특수목적공공병원 사용자 교섭대표)

국립중앙의료원장

주영수 ()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이진경 ()

서울시동부병원장

소윤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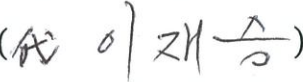
서울시북부병원장

송관영 ()

서울시서남병원장

장영수 ()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철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하유성 ()

(지방의료원 사용자 교섭대표)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민간중소병원 사용자 교섭대표)

녹색병원장

임상혁 ()